광주·전남 코스피 상장사 영업실적 '악화'

한국거래소, 34개 기업 실적 분석

한전 순손실 1조2천억원대 크게 영향 미쳐

영업이익률 1위 광주신세계, 한전KPS 2위

올해 상반기 광주·전남지역 코스피 상장사의 영업 실적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악화'된 반면 코스닥은 '호전'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전남지역은 전체 영업 실적을 좌지우지하는 한국전력의 부진이 영향을 미쳤다.

지난달 31일 한국거래소 광주사무소가 내놓은 '2021년 상반기 광주전남 코스피(16사)·코스닥(20사) 상장기업 결산실적'에 따르면 매출액은 32조7,207억원으로 전년대비 3.59% 증가했다. 영업이익은 -1조7,618억원으로 전년 흑자(570억원)에서 적자로 전환됐다. 순이익도 -9,891억원으로 전년 적자(-1,467억원)폭보다 커졌다.

코스피 상장기업 16사 매출액은 31조9,299억원으로 전년대비 3.22% 증가했으나, 영업이익은 -1조7,973억원으로 전년 흑자608억원에서 작자로 전환됐고, 순이익은 -1조245억원으로 전년 적자(-1,342억원)폭보다 확대됐다.

반면 코스닥 20사 매출액은 7,908억원으로 전년 6,524억원 대비 21.22%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356억원으로 전년 적자(-37억원)에서 흑자로 전환됐다. 순이익도 353억원으로 전년 적자(-126억원)에서 흑자로 전환됐다.

광주·전남지역 상장기업 실적은 한국전력이 크게 영향을 미쳤다.

한국전력을 제외한 광주·전남 코스피 상장기업 매출액은 3조6,695억원으로 전년대비 19.16%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2,077억원으로 전년(965억원)대비 115.21% 증가했다. 순이익도 1,819억원으로 전년 적자(-1,727억원)에서 흑자로 전환됐다. 한국전력의 순손실은 1조2,065억원에 달했다.

한국전력은 올 상반기 전력 판매량 증가세에도 불구, 늘어난 연료비와 전력구입비로 인해 적자로 전환했다.

한전은 지난해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하고 국제 연료비에 영향을 받는 실적 변동성을 줄이려 했지만, 정부가 '국민생활 안정'을 위해 시행을 유보하며 결국 수익성 악화에 대응하지 못했다.

코스피 상장기업 매출액 영업이익률 1위는 광주신세계(35.15%)였으며, 한전KPS(13.44%), 부국철강(6.63%)순이었다. 흑자기업으로는 한전KPS(순이익 763억원), 금호건설(678억원), 광주신세계(255억원)등의 순으로 나타났지만 한국전력(순손실 -1조064억원), 금호타이어(-304억원), 다스코(-65억원), 위니아딤채(-88억원)등은 적자를 기록했다.

코스닥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남화산업(52.47%), 와이엔텍(33.16%), 우리손에프앤지(20.91%)순이었다. 흑자기업으로는 와이엔텍(순이익 134억원), 정다운(85억원), 오이솔루션(77억원)이었고, 위니아딤채(-88억원), 피피아이(-56억원), 애니젠(-25억원)등은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미애 기자

"공동주택 하자 발생 최소화 노력"

유탑그룹 남경용 박사, 건축시공학회에 논문 게재

유탑그룹 기술연구소 남경용 박사(사진)논문이 8월 한국건축시공학회에 게재됐다.

논문을 게재한 남경용 박사는 현장의 관리 경험을 바탕으로 '공동주택 하자접수 유형변화 및 특징에 관한 연구'를 게재했다.

남경용박사는 태영건설 원준연 팀장과 공동으로 진행한 이번 연구에서 건설사들의 복잡하고 다양한 하자발생의 유형 및 건수 추이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하자발생 감소의 품질관리 방향에 대한 예측을 하는 성과를 얻었다.

최근 건설사들은 새롭게 수립한 ESG 경영방침에 따라 공동주택 하자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으나 하자접수는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에 유탑그룹 기술연구소는 10년 전 공동주택 하자발생 유형과 최근 준공된 공동주택 하자발생 유형의 차이를 폭넓게 살펴보고 A/S 접수 유형의 변화와 기계설비 내 일반 부분 비율이 약 25% 감소되는 특징을 발견했다.

해당 연구 내용을 바탕으로 유탑그룹은 기존 CS통합 관리 시스템을 보완 개선하고 향후 시공하는 공동주택 하자 해소에 적극 힘쓸 예정이다.

남 박사는 "앞으로도 꾸준한 연구로 공동주택 하자 발생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미애 기자

고소한 가을 전어 맛보세요 광주지역 롯데마트 4개점(월드컵점, 수완점, 첨단점, 상무점)이 가을 대표 수산물인 '전어회'를 선보이고 있다. 7월 산란기를 막 끝낸 전어는 뼈가 무른 10월까지 횟감이나 구이용으로도 인기다. /롯데쇼핑 제공

신임 소상공인연합회장에 오세희씨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소공연)는 지난달 31일 서울 영등포구 연합회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3년 임기의 제4대 회장으로 오세희 현 부회장(사진)을 선출했다.

오 신임 회장은 한국메이크업미용사회장, 동반성장위원회 위원,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등을 맡고 있다.

오 회장은 "코로나19 사태로 소상공인이 일방적 희생을 강요받는 최대 피해자가 됐다"며 "코로나19 관련 현안 해결에 중점을 두고 업무를 시작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이해와 화합의 자세로 소공연 위상을 제고하고 소상공인 대변자로서의 역할과 책무를 다해 서민경제와 벼랑 끝 소상공인을 반드시 살린다는 각오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지현 기자

소진공, 용인에 소상공인지원센터 개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조봉환, 이하 소진공)이 용인에 소상공인지원센터를 개소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와 소진공 조봉환 이사장은 신속한 코로나19 피해 회복과 소상공인 현장지원 강화를 위해 지난 27일 경기 용인시 처인구 금령로에 위치한 용인센터를 개소, 관련 업무 지원에 나선다.

이와 관련해 30일에는 경기 안성시 중앙로에 위치한 안성센터도 신규 개소, 현장 지원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조봉환 이사장은 개소사를 통해 "용인시에 위치한 소상공인 사업체는 약 3만8,000여 개로, 관할 센터의 신규 개소를 통해 지역 소상공인들의 지원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도 공단은 어려움에 직면한 소상공인들의 피해 회복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센터는 향후 코로나 19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 지원과 소상공인의 생애주기별 지원,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현장 밀착 지원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오지현 기자

야생동물 질병 연구 협력

환경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과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최근 야생동물과 가축 등에서 발생되는 동물질병에 대해 역학조사, 연구 등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은 검역본부 김종철 동식물위생연구부장과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노희경 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최소인원으로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진행됐다.

질병관리원은 멸종위기종 등 야생동물 보호를 위한 야생동물질병의 전문적 대응기관으로 지난해 9월 설립됐다. /우성진 기자

경제 프리즘

무협, BMW 테스트베드 추진

한국무역협회는 BMW그룹코리아와 함께 'BMW 테스트베드 위드 코리안 이노베이션'에 참가할 스타트업을 오는 12일까지 모집한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국내 혁신 스타트업에 기술실증(PoC) 기회를 부여하고 이를 바탕으로 BMW그룹코리아와 사업화 연계, 사업 확장, 글로벌 진출 가능성을 탐색할 수 있게 지원하는 오픈 이노베이션 프로그램이다.

신청은 무역협회의 오픈 이노베이션 플랫폼 이노브랜치(www.innobranch.com)에서 받는다.

모집 분야는 ▲시승 차량 관리 및 모니터링 솔루션 ▲빅데이터 분석 솔루션 ▲브랜드&마케팅 솔루션 ▲'myBMW' 애플리케이션 시뮬레이션 테스트 프로그램 ▲사내 업무 프로세스 관리 솔루션 ▲기타 협업 자유 제안 등 총 6개 분야다.

공항공사, 아태지역 최우수 공항

한국공항공사는 공사 산하 제주·김해국제공항이 '2021 세계항공교통학회(ATRS) 공항운영효율성 평가'에서 아시아·태평양지역 최우수 공항으로 선정됐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제주공항은 연간 이용객 2,500만~4,000만명의 중·대규모 공항 부문에서 5년 연속, 김해공항은 연간 이용객 1,000만~2,500만명의 중·소규모 공항 부문에서 4년 연속 수상했다.

ATRS는 1995년 설립된 항공교통 분야 세계 최대 규모의 학술단체로 매년 전 세계 공항의 수송 실적·수익 창출 등 운영관리 효율성을 비교·분석해 평가한다.

공사는 신규 저비용 항공사 유치와 국내 노선 다변화 등을 통한 여객 증가와 스마트공항 구축 등 공항운영 프로세스 최적화 및 효율적인 시설관리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전했다.

한화 '사이언스챌린지' 대상 선정

한화그룹은 과학 인재 발굴 프로젝트 '한화사이언스챌린지(Science Challenge) 2021' 대회에서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 백건우·조재인 학생을 대상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이들은 자동차 변속기의 작동원리와 태엽스프링을 적용한 친환경 동력 리어카 제작법을 제안했다. 적은 비용과 친환경 동력으로 폐지를 줍는 노인들이 더 안전하고 쉽게 리어카를 끄는 방법을 제안해 대상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대상팀에는 4,000만원의 상금이 부여되고 금상 2팀에는 각 2,000만원이 수여된다.

대상·금상·은상을 수상한 5개팀 10명에게는 스위스, 독일 등 우수 해외대학과 기관을 방문할 수 있는 해외탐방 프로그램 참여 기회가 주어진다.